

Grace in Action

Stories of God at work in and through the GIS community

전투로 향해 전진

전쟁중에는 “그냥 다른날”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날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날에 그날 자체의 도전에 직면합니다. 폴 브래들리 선교사님은 군대 사역 단체인 케이든스 인터네셔널(cadence International)과 자유 버어마 레인저 (Free Burma Ranger: 이하 FBR)와 협력사역을 하고 있어 이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달 제가 이라크에 있을 때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지뢰가 폭발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팀원들과 저는 현장으로 달려 갔고 부상당한 이라크 병사를 치료했습니다. 그 병사는 매우 겁을 먹었고 죽을거 같다고 폴 선교사님께 말했습니다. “저는 그 병사몸에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병사를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가 회복된 후에 함께 얘기를 나눌수 있었고 그는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폴 선교사님은 몇 년 전에 결성되어 지금까지 주로 버어마에서 일하는 구호단체인 자유 버어마 레인저(FBR) 팀원들과 지난 2년간 4번 이라크에 다녀왔습니다. FBR은 버어마에서 땅과 자원을 지배하기 위해 버어마 군인들이 조직적으로 소수 민족들을 죽이고 강간하고 노예로 부리는 지역에서 일하는 구호팀을 훈련합니다. 2년전에 ISIS와 전쟁을 한 이라크와 쿠르드가 그들을 지원하는 팀을 보내주도록 FBR에 요청했습니다. 팀원들은 ISIS와 싸운 군사들 뿐 만 아니라, 전쟁지역을 피신해 나온 수십만명의 사람들을 위해 의료적 케어와 구호활동을 펼쳤습니다. 종종 FBR팀원들은 피신해 나온 사람들을 먼저 도와 주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모든것을 버려두고 간신히 피신한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음식과 물을 나눠줍니다.”

“전쟁이 시작 될 때 대부분의 구호 단체가 돌아갈때 FBR은 거기를 향해 나아갑니다.” 라고 폴 선교사님이 얘기했습니다. “그야말로 모든것을 버려두고 간신히 피신한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음식과 물을 나눠줍니다.”

폴 선교사님의 팀은 지난 여행동안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를 당한 가족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선교사님은 그들을 근처 의료 구호지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어린 세 살배기 딸은 끝내 생존하지 못했습니다.

폴 선교사님이 얘기했습니다. “의사선생님이 딸이 죽었다고 부모에게 말할 때, 두분의 슬픔이 복받쳐 터졌습니다. 저는 딸을 잃은 아버지를 위로해 주고자 안아주고 함께 울었으며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제 품에 딸을 안고 얼굴을 바라봤을 때 제 마음가운데 이 딸이 예수님과 함께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딸을 통해 남은 가족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했습니다.”

